



IAAF 회장 만난 '세계육상유치 특위'

정부·국회 전폭 지원 대구 시민 염원 전달

英 도착 본격 외교 활동

오는 27일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로 유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은 2일 오전 1시(현지시각 3월1일 오후 4시) 제29회 유럽 실내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영국 버밍햄 시내 하이아트호텔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라민 디악 회장(세네갈)과 클라우제 사무총장(독일)을 면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종근 위원장(한나라당·대구 달서갑)을 비롯해곽성문 의원(한나라당·대구 중·남), 김부겸 간사(열린우리당·경기 군포), 장운석(한나라당·영주)·지병문(열린우리당·광주남)·채일병 의원(민주당·전남 해남·진도)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구시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까지 공식후원사가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유치되기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들이 절대로 자사를 홍보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스포츠 3대 강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면, 육상종목이 취약한 아시아대륙에 육상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상 약제국

가에서 대회를 열면 육상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해 12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가 IAAF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윤리규정 때문에 개최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이사 28명을 직접 만나 홍보활동을 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외교활동 차원에서 유럽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버밍햄을 찾아 이뤄졌다. 특히 특위는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초(超)당적·국가적 차원에서 대구시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박종근 위원장은 "라민 디악 회장이 클라우제 사무총장과 함께 특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는 자체가 우호적인 태도"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IAAF측에 밝히기 위해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소속 의원들은 버밍햄대학과 국립실내경기장에서 각각 열리는 유럽육상선수권대회 개막전야 만찬과 개막식에 참석, 이 대회에 참가한 IAAF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올해 유럽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는 유럽 50여 개국,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의원들은 버밍햄 일정을 소화한 뒤 A팀(박종근·김부겸·장운석 의원)과 B팀(곽성문·지병문·채일병 의원)으로 3명씩 나눠져 IAAF 집행위원들이 있는 독일·그리스(A팀)와 스웨덴·핀란드(B팀)를 각각 방문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활동을 벌인다.

영국 버밍햄에서 김상진기자
sjkim@yeongnam.com



1일 영국 버밍햄에 도착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라민 디악 IAAF 회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